

아웃도어 상반기 매출, 평균 22.5% 파죽지세로 급성장

한국섬유신문(2022. 7. 7.)



엔데믹 전환속에서 캠핑과 아웃도어 활동이 급증하면서 상반기 매출이 급성장한 반면, 하반기에는 여가 활동이나 여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물가 인상 등 소비심리 위축으로 패션 분야 성장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.

- 아웃도어 시장은 파죽지세로 성장 중이며, 집계한 9개 아웃도어 브랜드(노스페이스,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, K2, 블랙야크, 네파, 코오롱스포츠, 아이더, 컬럼비아, 밀레) 올해 상반기(2022.01.01.~06.30) **평균 매출은 전년대비 22.5% 상승**
 - (노스페이스) 최근 복고풍 트렌드와 에코,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브랜드로 부각되면서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, 상반기 매출이 전년대비 54.6% 폭풍 성장
 - (코오롱스포츠) 코오롱스포츠는 일상적인 스타일에 아웃도어 슈즈의 기술을 적용한 ‘테크 스니커즈’가 매출을 견인하였는데 7월초 기준 누적 약 7만족 이상 판매되었으며, 냉감 티셔츠와 웨더코트 등도 많이 팔린 아이템에 이름을 올리면서 매출이 41.4% 급등하며 성장률에서 2위를 차지
 - (K2) 상반기 신발이 성장을 견인하였으며, 하이킹화 ‘플라이하이크 클라우드’를 2회 리오더하면서, 단일 상품으로 8만족 이상 판매
- 9개 아웃도어 브랜드는 6월 한달간 전체 매출이 평균 27.2% 급성장
- 업계는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성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1위와 2위 브랜드 매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하였으며, 상반기 2위에서 6위까지 매출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 옷값이 비싼 패딩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매출 순위가 바뀔 것으로 예상